



2014년 2월 5일(수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계량측정제도와 최미애 과장(02-509-7230), 유경희 연구관(02-509-7231)

법정계량단위(제곱미터(m²), 그램(g)) 사용 생활주변으로 확산 - 법정계량단위 정착시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효과 뚜렷 -

□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(원장: 성시헌)은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법정계량단위 사용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꾸준히 실시한 결과, 부동산·토지면적 단위인 제곱미터(m²), 귀금속 무게의 단위인 그램(g) 등 법정계량단위 사용이 인터넷,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, 언론매체 등 생활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다

○ 또한 법정계량단위가 모든 상거래에 확산·정착될 경우 수출입 및 GDP(국내총생산) 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할 것으로 전망하였다.

* 법정계량단위 : 미터법이 현대화 된 국제단위계이며 m, kg 등이 기본 단위로 사용됨

□ 지난 2007년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, 돈 사용을 금지하고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(m²), 그램(g) 단위를 사용토록 적극적인 홍보와 계도를 하였으며, 2010년 6월부터는 신문광고에 평, 돈을 사용할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, 2013년 1월부터는 인터넷,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 생활주변으로 계도·단속범위를 확대하였다.

○ 지난해 17개 주요 인터넷사이트에서 위반사례 486건을 적발하였으며 집중적인 계도를 통하여 75%(365건)를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토록 하였고, 6개 귀금속 사이트에서는 위반사례(8건) 중 88%(7건), 부동산 중개사무소(1,271개소 조사)는 위반업소(832개소)의 55%(455개소)에서 법정계량단위로 시정하였다.

*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1차 구두주의, 2차 서면경고 등 계도를 통하여 시정을 유도하고 있으며, 그래도 어길 경우에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

○ 또한 TV, 신문기사, 신문광고 등 언론매체에서는 법정계량단위(m³) 사용 비율이 2007년 63.2%에서 2013년 82.7%까지 높아지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였다(조사기관 : 한국소비자연맹).

□ 한편 국가기술표준원은, 법정계량단위 정착의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조사·분석한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, 모든 상거래로 법정계량단위가 정착될 경우 무역(수출입) 및 GDP증가 등 국가경제 성장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였다.

○ 법정계량단위 정착은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.05% 증가시키고 수입은 연간 0.06~0.07% 증가시키며, 우리나라의 GDP를 연간 0.002~0.003%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.

□ 국가기술표준원은 제곱미터(m²), 그램(g) 등 생활주변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하여 계도와 단속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며,

○ 또한, 우리나라 경제성장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상거래 전반으로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확대하여 나아갈 계획임을 밝혔다.

< 참고. 1 > : 법정계량단위 정책추진 및 사용 현황

< 참고. 2 > : 「법정계량단위 정착 정책추진 성과 조사연구」 개요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계량측정제도와 유경희 연구관(☎ 02-509-7231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 1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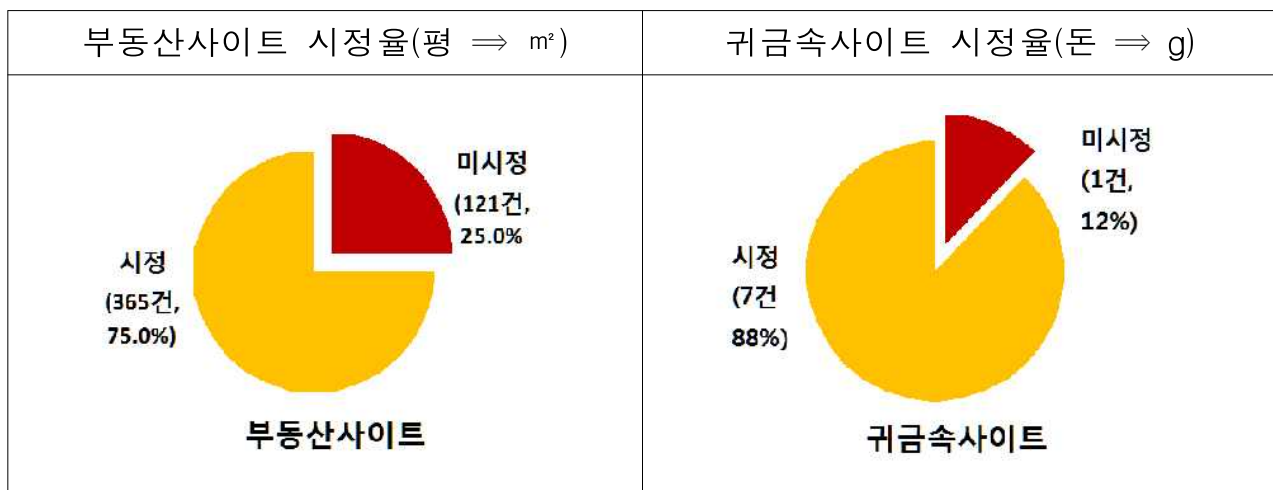
법정계량단위 정책추진 및 사용 현황

□ 그간의 정책추진 경과

- '07년 '평(坪)' 단위를 'm²'로 전환하기 위한 홍보·계도를 추진
 - * (일반국민 대상) TV, 라디오, 지하철 및 옥외전광판 홍보, 광고포스터, 캠페인 등
 - * (경제주체별) 박람회 홍보, 지역행사지원, 교육책자·전통시장 가격표 배포 등
- '07년 언론매체(기사 및 광고)의 법정계량단위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시작
 - * 모니터링 조사기관 : 한국소비자연맹
- '09년 비법정계량단위를 사용한 법령, 지자체 조례 개정 등 제도정비
 - * 국토부 「주택공급규칙」 등 '평' 사용 4개 법령 및 지자체 73개 조례
- '10.6월 신문광고 상습위반자 과태료 처분 실시
 - * 과태료 부과대상 : 구두주의, 서면주의, 서면경고 등 3회 이상 상습 위반자
 - * 과태료 부과 건수 : '10년 31건, '11년 68건, '12년 9건, '13년 16건
- '13.1월 인터넷, 부동산 중개사무소 광고 등에서 '평', '돈'을 중심으로 상습·반복적 위반자에 대한 단속실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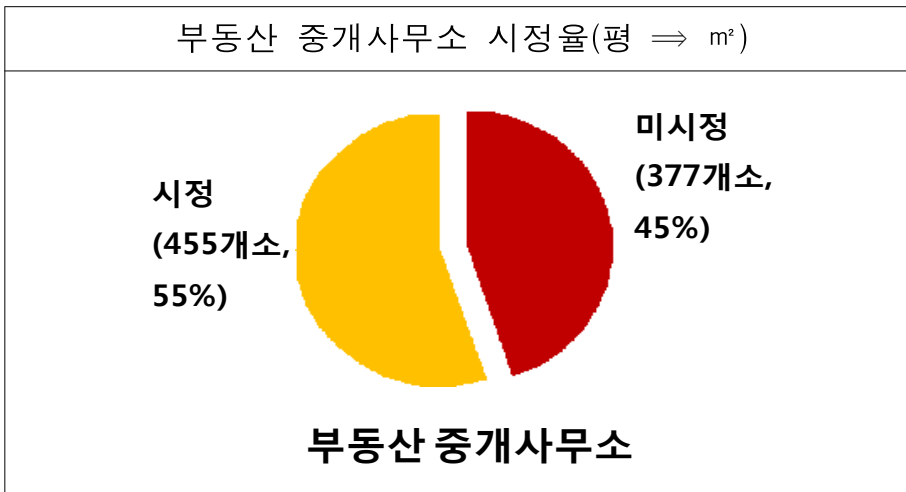
□ 계도·단속에 따른 법정계량단위 시정 현황('13년 조사결과)

- 인터넷(부동산, 귀금속사이트)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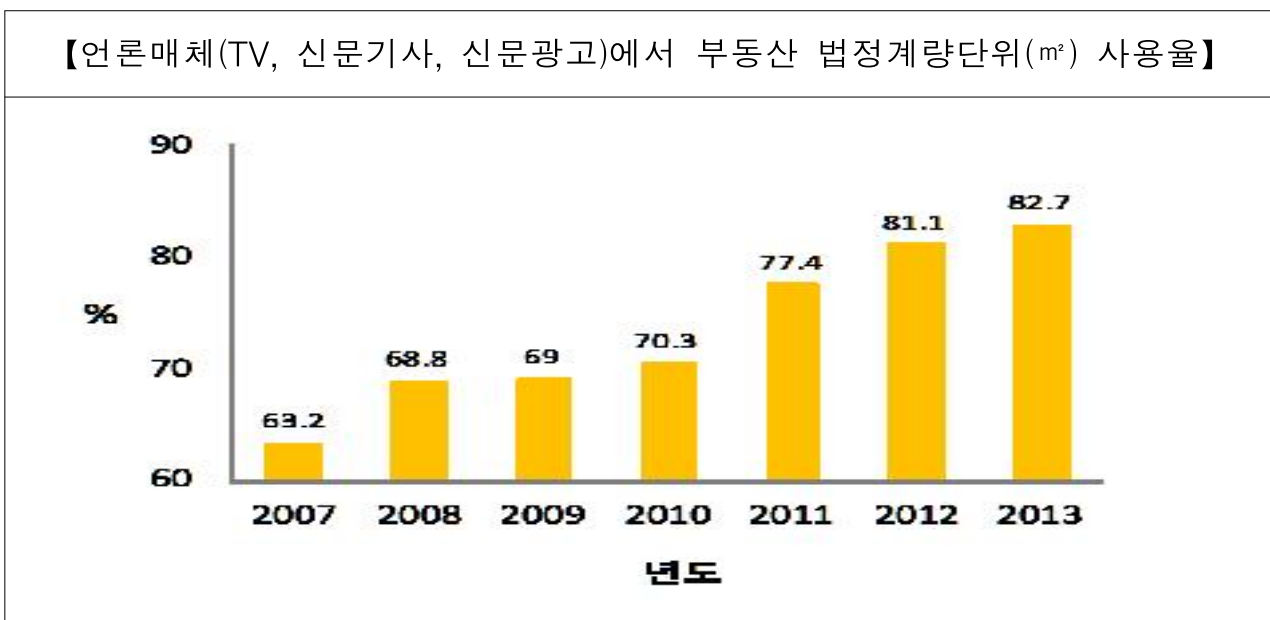
* 조사대상 : 17개 부동산사이트 및 6개 귀금속사이트의 광고

○ 부동산 중개사무소



- * 조사대상 : 서울특별시, 6개 광역시,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1,271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광고
- * 계도·단속에 따라 위반업소(832개소)의 55%(455개소)가 법정계량단위(m²)로 시정하였음

□ 언론매체의 법정계량단위 사용 현황[‘07~’13년]



- * 조사대상 : TV(KBS, MBC, SBS, mbn, YTN), 조선, 동아, 중앙, 한겨레, 한국일보, 매일경제, 서울경제, 파이낸셜뉴스, 한국경제, 헤럴드경제 등 15종

- * 조사기관 : 한국소비자연맹

1. 연구개요

- (과제명) 법정계량단위 정착 정책추진 성과에 관한 조사연구
- (연구기간) 2013.8월 ~ 2013.12월
- (연구용역 수행기관) 경희대학교 산학협력단(총괄책임자 : 무역학과 장용준교수)

2. 연구보고서 주요내용

□ 연구 목적

- 그간의 법정계량단위 정착정책 실효성 및 계량단위의 국제표준화가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후, 향후 정책추진방안 제시
 - * 우리나라는 국제단위계(SI)를 법정계량단위로 채택

□ 분석방법

-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위한 그간 정부의 활동 데이터 통계분석
 - '10.6월 신문광고를 대상으로 한 단속실시 이후 법정계량단위 정착을 증가여부를 통계적 검증을 통하여 분석
 - * 분석대상 : ①언론매체(기사, 광고)별 법정계량단위 정착율('08~'13년), ②생활 주변(인터넷, 부동산중개업소, 모델하우스, 현수막) 법정계량단위 정착 모니터링 결과('12~'13년)
- 계량단위 국제표준화가 무역 및 국내 GDP 성장에 미치는 영향분석
 - (무역에 미치는 영향) 한국 및 63개 교역대상국의 계량단위 국제 표준화 척도, GDP, 국가간 거리가 수출입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
 - * 계량단위 국제표준화 척도 : 분야별 SI단위에 대한 국제도량형국(BIPM) 교정 · 측정능력표(Calibration & Measurement Capabilities Table) 등재건수
 - * 중력모형 및 연산가능일균형모형(CGE)를 이용하여 분석
 - (GDP에 미치는 영향) 계량단위 국제표준화에 따른 수출입 증가분이 국내 GDP 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GTAP(Global Trade Analysis Project)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
 - * GTAP 모형 : 전세계 투입 · 산출, 교역, 거시경제 자료를 통한 국제무역의 거시경제 효과 분석 표준모형

□ 주요 연구결과

- (법정단위 사용현황) 법정계량단위(m², g) 사용현황에 관한 기초통계 분석 결과, 제도 및 단속의 실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
 - 신문사 광고는 단속기점('10년)으로 정착율이 28%이상 증가('10년 54.4%→'13년 82.4%)
 - 인터넷, 부동산중개업소 등은 홍보·계도로 인하여 위반업체의 시정율이 증가
 - * 홍보·계도 후 시정율('13년) : (부동산사이트) 75%, (귀금속사이트) 88%, (중개업소) 55%
- (경제적 효과분석) 법정계량단위 정착이 산업계까지 상거래 전반으로 확산될 경우, 단기적으로 무역의 증가를 가져오고 장기적으로는 **GDP** 증가에 기여
 - (무역에 미치는 효과) 우리나라 수출을 연간 0.05% 증가시키고, 수입은 연간 0.06~0.07%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남
 - 무역증진효과는 ①대선진국 수출, ②기술집약적 산업, ③중소기업, ④중간재 무역에서 영향이 더욱 현저함
 - (GDP에 미치는 효과) 법정계량단위 정착에 따른 무역증진 효과는 우리나라의 실질 GDP를 연간 0.002~0.003% 증가시키는 것으로 분석 됨